

윤대웅의 릴케시 번역 고찰*

김 효 중
(대구가톨릭대)

1. 서론

릴케는 특히 한국인이 애호하는 시인으로서 그에 관한 연구논문만도 수 백편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1990년대까지 독문학 영역에서 발간되는 학회지의 릴케 관련 논문과 번역을 인용한 정도가 평균을 넘어설 정도로 다른 어느 작가보다 많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특히 릴케의 존재론적 시론이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이라 할 김춘수, 윤동주, 김현승, 이성복 등에 이르기까지 직접적, 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릴케의 시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번역, 소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전신자로서의 번역가의 번역태도나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 일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1980년대 초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번역이론에 관한 연구¹⁾에 전념할 때

* 이 논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연구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1) 이 부분에 관한 필자의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용철의 번역시론-A. E. 하우스만의 시론을 중심으로」, 『어문학』43집, 한국어문학

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관한 관심은 매우 저조하여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간헐적으로 연구성과를 보여주는 정도에 그쳤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 서부터 번역학은 독립된 학문으로서 새로이 부각되고 특히 구미 각국에서 번역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소장학자들이 적극적인 학문적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번역에 대한 연구와 연구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언어의 사회성 내지 역사성이 전혀 다른 이질(異質)의 문학을 번역해내는 데는 사실상 여러 가지 난점이 수반되는데, 특히 시는 산문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시에 쓰인 어휘가 내포하는 의미의 차이에 의하여 번역 내용이 원문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섬세한 시적 감각의 표현도 민족, 사회의 차이, 시인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사면에서만 보더라도 번역자가 어떤 교양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시는 그야말로 도덕, 풍속, 기질 등의 총체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된다.

윤태웅은 1930년대 번역의 선도주자이던 박용철의 릴케시 번역을 계승한 번역가로서 1940년대 우리 번역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번역자이다. 박용철은 10여 년간 번역활동에 전념해오다가 1938년에 타계하였는데, 최근 김재혁의 발표²⁾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그가 전문적인 릴케 연구서를 번역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보면, 그의 릴케에 관한 관심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그의 노력에 힘입어 1930년대 릴케의 서정시에 대한 기본 지식이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0년대에 이르면, 임학수, 금남, 신남철, 윤태웅, 김선부 등이 독일문학을 소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는데, 윤태웅은 릴케시 총 9편을 번역, 소개하여 릴케의 번역, 소개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³⁾ 그러므로 한국번역문학사

회, 1983.

「용아·박용철의 역시고-하이네시 번역을 중심으로」-『국문학연구』7집, 효성여대 국어국문학과, 1983.

「문학작품 번역의 이론과 실제-용아의 괴테시 번역을 중심으로」-『영남어문학』10집, 영남어문학회, 1983.

2) 김재혁은 그의 「새로 발표된 박용철의 원고 <R. M. Rilke의 서정시>-초벌 번역원고를 통해 본 박용철의 번역태도」, 『문학사상』, 2004. 12, pp. 158-177)에서 번역가로서의 박용철의 면모를 상세히 조명하였다.

상 1930년대를 잇는 1940년대의 중요한 번역가로서 윤태웅의 번역업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존연구를 일별할 때 이러한 연구성과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편의상 윤태웅의 릴케 번역시 「애가」(“Liebeslied”), 「엄숙한 순간」(“Ernstes Stunde”), 「소녀의 노래」(“Lieder der Mädchen”) 등 3편을 원문과 함께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현대번역본을 비교, 분석할 때 참고자료로 삼았다. 다만 원문인 릴케시에는 제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특이하고 윤태웅은 제목이 있는 시를 번역해 놓고 있어서 제목

3) 김병철(『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pp, 806-807)의 조사에 의하면 1940년대 독일문학의 번역, 소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種別	翻譯作品名	原作者	譯者	出處	刊行日
小	墓地로 가는 길	토마스 만	林學洙	〈人文評論〉 2:1	40. 1. 1
"	에지프트 夢想曲	E.고이텐	"	〈女性〉 5:1	"
"	詩人	헬만·헛세	琴南	〈人文評論〉 3:1	41. 1. 1
"	다시 만났으나!	헬만·헛세	申南徹	〈新時代〉 2:2	42. 2. 1
"	偉대한 밤	에리히·켈데링	缺	〈春秋〉 3:6	42. 6. 1
詩	아담 第一世	라이너마리아릴케	尹泰雄	〈三西文學〉 第3輯	40. 3. 1
"	가을	하이네	李孝吉	〈文友〉	41. 6. 5
"	孤獨	릴케	李孝吉	〈文友〉	41. 6. 5
"	佛蘭西進擊	릴케	尹泰雄	〈三千里〉 13:7	41. 7. 1
"	旗대를높이들어	未詳	尹泰雄	"	"
"	戰友	"	金善夫	"	42. 4. 1
"	愛歌	"	"	〈朝光〉 8:4	"
"	嚴肅한 瞬間	R.M. 릴케	"	"	42. 5. 1
"	少女의 노래抄	"	"	" 8:5	42. 7. 1
"	가을날	"	尹泰雄	〈春秋〉 3:7	42. 11. 1
"	가을	"	"	" 3:11	43. 9. 1
"	가을	"	"	〈朝光〉 9:9	"
評	나외두눈을엿새버리신다하	"	"	"	40. 4. 1
"	드라도	"	"	〈文章〉 2:4	40. 9. 1
"	니이체	하인리히·만	"	〈三千里〉 12:9	"
"	나치스와 民族文學	미이트릿히·젯켈	缺	〈人文評論〉 2:9	40. 11. 1
"	歐羅巴新秩序의 根本原則	"	"	" 2:10	"
"	歐羅巴文學의 將來	칼·메게루레	"	"	"
"		스테판·츠와이크	"	"	"

없는 시편들을 번역해 놓은 박용철과는 비교된다.

2. 서정시 번역의 문제점과 번역평가

서정시의 번역에 관한 한 찬반론(贊反論)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번역에서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의미나 등가의 개념이 서정시의 번역에서는 명백하지 않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문학으로서의 미학을 번역에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의 어려움은 서정시의 번역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서 프로스트(Robert Frost)는 심지어 “시는 번역하면 잃는 것이다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라고 하여 시 번역이 거의 불가능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힌 이는 발레리인데, 그의 생각은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만이 완벽하고 심오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David 153).

시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관심을 깊이 가지면서도 언어의 투명성을 되도록 배제하고 진부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시인 특유의 풍자나 모순 어법을 즐겨 쓰며 어휘가 지닌 의미 이상의 무엇을 시가 지니기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시번역가의 주요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시작품 자체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역어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미층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시적 모델을 재창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한 시인의 작품을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하고 시인이 시적 과제로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번역의 방향이 상실된다.

에즈라 파운드의 경우에는 「벳사람(The Seafarer)」를 번역하면서 번역될 텍스트의 의미 내용보다도 리듬, 어법, 단어의 움직임 등을 강조했다(Woods 22).

본고의 분석 대상인 릴케의 경우는 그 내면세계를 해석하는 데에 어떤 종교나 철학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의 시는 자신의 독특한 관점에 따라 시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완전하고도 균형있는 전체”(complete, balanced whole; Smith 134) 안에서 조명되어야 하므로, 번역가 역시 릴케의 이러한 면모를 파악해야 함은 물론 릴케 생각의 매개변수 안에서 문체, 형태를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 동안 사실상 미약한 상태에 머물렀던 번역비평은 1970년대에 들어 과학적인 번역비평의 기초를 제공하는 연구업적이 현저히 눈에 띄게 되면서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번역비평의 기본요점은 원본과 번역본의 비교를 통해 오류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다. 기존의 번역비평은 즉흥적이거나 일회적이어서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인 바, 번역비평의 규범에 의거하여 번역비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계에서 운운(云云)되는 “대용커피(Zichorienkaffee)”⁵⁾는 좋지 않은 번역을 뜻하는 것으로서 번역자가 성급하게 번역에 임했거나 번역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거나 언어수행 능력의 부족, 텍스트 선택의 문제, 문체의 번역 등에서 원문과의 거리가 생기면서 빚어진 결과이다. 때로는 작품의 원작자와 번역자 자신의 감수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탓에 생략하거나 혹은 의역하게 된다. 이처럼 원작에 손상을 입혔을 때 겉으로 드러난 글 맵시는 한층 매끄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원작의 의미나 가치가 제대로 전달될지는 의문이다.

번역비평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번역자의 언어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 본래 전이(transfer)는 실험 튜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과정처럼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번역은 개인이 세운 원칙에 달려 있고 반복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므로 한 텍스트를 같은 번역가가 번역하더라도 번역할 때마다 다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같은 텍스트에 대하여 번역가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1) 모든 번역가는 개인별로 축적된 언어수행 능력은 물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문체를 가지고 있고, 2) 기초적이면서 부차적인 내용의 “언어통신의 의미론적 기초영역⁶⁾은 비록 그들의 번역능력이 비슷하더라도 번역가들 사이에 변화가 많

4) 아래의 연구업적은 그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A. Propopic. 1973. *Zum Status der Übersetzungskritik in Babel*, London.

W. Wilss. 1974. *Probleme und Perspectives der Übersetzungskritik*, in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München,

K. Reiß, 1971.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Übersetzungskritik, Kategorien und Kriterien für eine Sachgerechte Beurteilung von Übersetzungen*, München,

5) 이 말은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가 불완전한 번역을 두고 한 말이다(Wolfram Wilss, *The Science of Translation*,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1982, p. 216).

6) 이 말은 “Semantic Basic Categories of Linguistic Communication”(Ungeheur. 1971.

고, 3) 단순한 전달상황과는 달리 자연어는 국제어가 의미하는 지시사항과 대강 동등한 수준의 몇 가지 변형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번역비평가는 원문과 번역문의 상관적, 질적 집합을 고려하되 텍스트의 기능, 구성, 수용 등을 참고로 하여 원문, 번역문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 때 번역비평가의 과제는, 1)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 2) 번역문에 이르는 언어 심리적 절차의 재구성, 3) 상호 텍스트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식의 산출이며 이 과제를 위해서는 언어수행능력을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크르체조우스키(Krzeszowski 21)의 언급처럼 등가문장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두 나라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언어수행 능력의 일부인 반면, 번역능력은 번역 수행능력의 일부이다.

과학적, 상업적 텍스트, 신문기사, 관광정보용 책자 등의 번역은 비교적 객관적인 번역비평이 가능하나, 문학번역 비평은 용이하지 않다. 문학작품의 모든 독자 나아가서 문학비평의 독자는 문학적 표현이 관계된 유효한 개념 안에서 온전히 인식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번역비평의 객관성은 통신적 용법의 규범 안에서 논의된다. 의미상으로는 맞지만, 상황으로 볼 때는 제대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실제 관습상 많이 쓰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하우스(House 26)의 용어대로 “의미의 실용적인 면”(the pragmatic aspect of meaning)을 도외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번역비평의 성공 여부는 요인 분석과정에 따르며 언어행위 연구에 달려있을 뿐 아니라 번역과정을 하나의 통신 기능으로 여기면서 원문과 번역문을 상황적 차원에서 결합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근사한 자연스런 등가”(The closest natural equivalence)⁷⁾를 찾아내는 일이다.

번역비평은 가치 평가면에서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면서도 체계적 기술면에서 최소한 객관성을 가진다. 즉 원문과 역문의 비교 분석이 그것이다. 텍

Inhaltliche Grundkategorien Sprachlicher Kommunikation, in K. G. Schweisthal. 1971. *Grammatik, Kommunikation, Festschrift für Alfred Hoppe*, Bonn, pp. 191-201) 라고 윤계호이어가 사용한 말이다.

7) E. A. Nid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스트 구성은 물론 텍스트 체계가 비교에 포함되며 이 부분에서 비평의 가치 평가가 적용된다. 번역비평가는 번역가의 시학과 예상되는 독자에 대한 특별한 관점에서 번역가가 적용한 번역방법도 고려해야 하고 번역가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사항이나 방식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는 번역에서 표현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때 불가피하게 변한 것과 번역자의 선택사항으로 변화된 것 사이의 차이는 중요하다. 불가피하게 변화한 것은 규칙이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역어 체계 혹은 문화적 체계 때문에 부과된 규칙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부적절한 번역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번역자의 선택에 따른 변화일 때는 번역자의 규범에 따른 것으로 수용할 만한 역어 텍스트로 번역된 것이며 역어의 규범에 위배되거나 역어의 규칙을 깨뜨리기도 한다. 한 때는 이러한 것이 번역의 정상적 태도였던 때가 있었다. 번역기술의 적합한 모델은 원문과 같은 언어, 문화, 전통에 기초한 다른 텍스트체계 사이의 관계, 원문과 역문 체계 사이, 역문과 독자, 역문과 같은 원문의 다른 번역들 사이의 관계 등 매우 복잡한 관계를 갖는다.

문학번역은 문학작품과 비평적으로 일종의 교제를 하는 것이다. 모든 번역은 그 원문에 대한 일종의 비평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관계로 번역비평은 비평의 비평이다. 그래서 독문학⁸⁾을 비롯한 다른 외국문학 작품 번역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번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결과이다. 즉 번역이란 먼밀히 검토하고 숙고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작업임을 무시한 채 무책임하게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번역의 질은 번역자의 능력에 따르지 반드시 앞 시대의 번역이 뒷시대의 번역보다 못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⁹⁾

8) 송동준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데미안』 번역(1948-1984)의 경우 40여 명의 번역자가 40여 출판사에서 출판한 번역의 상황을 검토하면서(송동준, 1986, 「독문학-장르별 현황과 문제점」, 『예술과 비평』, 가을호, pp. 56-73) 비교적 성실한 번역도 있었으나 번역이라 할 수 없는 번역이 더 많았다고 비판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첫 페이지부터 잘못된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있었으며 복잡한 부분은 아예 생략한 것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것도 첫 단락에서 특히 이미지 서술 부분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 많았고 가정문과 서술문을 구분하지 못한 번역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9) 이것은 “70년대보다 80년대가 번역의 질이 조금 후퇴한 인상을 준다. 새삼 이런 사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번역은 첫째, 동적(dynamic) 번역인데, 이것은 정보를 제대로 옮길 뿐 아니라 원문이 주는 것과 똑같은 감흥을 번역어로 옮겨 놓은 번역이며, 둘째, 정확성, 명확성, 자연스러움을 지닌 번역(Barnwell 64)이다. 이와 더불어 의미, 형태, 기분, 문체 등 네 가지는 좋은 번역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안정효는 우리말로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하지 못하는 “영어실력”은 번역에서는 쓸모가 없다(안정효 153)고 지적한 바 있다. 그만큼 어색한 표현이나 어휘가 눈에 띄면 보다 나은 표현이나 어휘를 찾아서 바꾸어 넣어야 한다.

3. 릴케시의 특성과 초기 번역양상

3. 1. 릴케시의 특성

릴케는 현대의 시인, 인간의 시인으로 그 위대성을 높이 사고 있는 시인으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도 그에 얼마나 경도되었는지를 그의 20주기일인 1946년 12월 29일에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Wozu Dichter)라는 제목의 추도 강연을 통하여 분명히 한 바 있다.

그의 시 발전 단계를 작품 중심으로 보면, 초기의 『시도시집』(*Das Stundenbuch*), 중기의 『신시집』(*neue Gedichte*), 『말테의 수기』(*Aufzeichnungen des Malte Lauridges Brigge*), 후기의 『두이노의 비가』(*Duineser Elegien*), 『올페우스에게 드리는 소네트』(*Sonette an Orpheus*), 『후기시집』(*Späte Gedichte*) 등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초기시는 주로 여성적인 감정세계, 불만스런 욕구, 동경, 자기경도의 소박한 서정, 북구여행을 통한 신비적 세계 체험의 노출 등이 그 작품의 경향이다. 『시도시집』에서 모든 시의 무도적 도취는 충만한 신(존재)의 체험에 대한 완전한 일치에 있다. 중기시는 그가 로망을 통해 체득한 사물의 형상화, 사물 본질에의

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뒤의 번역이 앞의 번역보다 훌륭한 것이 아니며, 번역의 우열은 역자의 능력에 따른다는 사실이다”(이충섭 75)라는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몰입이 특색이다. 릴케는 특히 꽃, 짐승, 풍경 등의 사물의 본질을 해명하였으며 비가(悲歌)에 이르러 인간존재의 실상의 인식 가운데 인간에 있어서의 의미, 인간의 사명, 인간으로서의 참된 것 등을 하나의 총 결산적인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천사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적 인간 본성의 제한, 모순이 초극된 존재요, 사고와 행위, 통찰과 완수, 의지와 능력, 실제와 이상이 하나가 된 존재로서의 구상화요 영감과 비탄의 양자요, 위로와 공포의 원천이다. 그래서 천사의 의미는 불완전한 인간 존재의 대표적 존재인 이상적, 절대적 존재로서의 시적 영감의 절대성을 상징한 것이다. 그는 작품을 통해 우주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 초월에 관한 질문, 천사라는 존재의 현실성의 문제 등 현실적 질문에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릴케야말로 시에서 현실을 초월하는 영혼의 드높은 음향을 전하고 언어의 형식미를 탐구하여 표현의 한계를 확대하는 데 공헌한 현대 독일시의 거장이다. 그래서 그에 관한 연구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각국에서 다수 진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영향이 크고 관심이 높은 시인이다(박찬기 456-457).

릴케는 실존주의 이론의 금과옥조인 ‘사물 그 자체로’ 라는 외침을 일찍이 몸으로 실천한 셈인데, 그 거침없는 편린들이 이른바 사물시를 포함해서 비가 전편에 편재해 있다. ‘사물 그 자체로’가 지니는 뜻은 무엇보다도 사물의 의미는 사물의 입장에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인데, 환언하면, 인간의 공리적 세속적 관계를 맺으면서 사물의 의미가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관습에 젖어 있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세계 내 공간이라는 개념은 사물은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릴케가 자연에 대한 안목이라든가 형상에 대한 인식, 이해가 깊어진 것은 두 번째 러시아 여행 후 화가 H. 포겔러의 초청으로 볼푸스베데에 머물면서 인상과 화가들과 사귀기 시작한 후부터다. 또한 공상이나 꿈 같은 것으로 시작하는 태도를 벗어나서 날카롭게 현실을 통찰하고 현실에 감춰진 진실을 꾸준히 형상화해 가는 노력의 과정으로서 예술을 이해하게 된 로댕의 비서역을 하면서 얻은 체험의 결과일 것이다. 특히 파리라는 도시의 퇴폐, 빈곤, 죽음의 분위기는 릴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것 또한 릴케의 중요한 체험의 하나다. 릴케와 더불어 현대시가 시작하는 까닭은 그가 인식한 인간 존재와 사물의 본질이 지닌 고독의 실상이 너무나도 근원적이어서 그의 문학이 정치적, 사회적 조건

을 뛰어 넘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차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3. 2. 릴케시의 초기번역 양상

릴케 문학은 1930년대에 이르러 한국문학사에 본격적으로 번역, 소개되었으며 김진섭이 「어떤 젊은 문학 지원자에게」라는 평론을 조선일보(1935. 7.12-13)에 연재 번역한 후부터다. 시 번역의 첫 번째 공로자는 박용철인데, 그는 「소녀의 기도」(마리아께 드리는)를 『여성』(1936. 6. 1)지에 처음 번역, 소개하였다. 그가 번역할 때 원작의 선택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이 당시에 이미 일본에서 서구문학 번역은 상당히 성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번역의 동기를 충분히 마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¹⁰⁾

윤태웅은 ‘R. M. 릴케시 2편’이란 제목 아래 『문우』(1941. 6. 5)에 「가을」(“Herbst”), 「고독」(“Einsamkeit”), 『조광』(1941. 4. 1)에 「애가」(“Liebeslied”), 「엄숙한 순간」(“Die Schwere Stunde”), 같은 잡지(1942. 5. 1)에 「소녀의 노래」(“Lieder der Mädchen”), 『춘추』(1942. 7. 1)에 「위대한 밤」(“Große Nacht”), 「가을날」(“Herbsttag”), 같은 잡지(1942. 11. 1)에 「가을」(“Herbst”), 『조광』(1943. 9. 1)에 「나의 두 눈을 없애버리신다하드라도」(“Lösch mir die Augen aus”)를 번역, 소개하고 있다.

윤동주는 릴케의 작품을 번역, 소개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얼마나 릴케에 경도되고 있는지는 그의 시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¹¹⁾

10) 1939년에 간행된 『박용철 전집』 1권에 보면, 박용철이 이미 릴케의 시 7편을 표제 없이 묶어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린 차례대로 번역시의 원문과 수록된 시집을 아울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erbst」, *Das Buch der Bilder*

「Maria, du Weinst」, *Die frühen Gedichte*

「Unsere Mutter sind schön müd」, *Die frühen Gedichte*

「Dein Garten will ich sein zuerst」, *Die frühen Gedichte*

「Schau unsere Tage」, *Die frühen Gedichte*

11) 참고로 윤동주의 「별헤는 밤」을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鏡)·옥(玉)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과 비둘기 · 강아지 · 토끼

4. 윤태웅의 릴케시 번역 분석

윤태웅의 번역시를 고찰하기 위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먼저 윤태웅의 릴케 번역시 「애가」(“Liebeslied”), 「엄숙한 순간」(“Ernste Stunde”), 「소녀의 노래」(“Lieder der Mädchen”) 등 3편을 원문과 함께 제시하고 현대영역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4. 1. 원시와 번역시의 비교

4.1.1 「애가」(“Liebeslied”)

WIE soll ich meine Seele halten, daß
 sie nicht an deine rührt? Wie soll ich sie
 hinheben über dich zu andern Dingen?
 Ach gerne möchte ich sie bei irgendwas
 Verlorenem im dunkel unterbringen
 an einer fremden stillen Stelle, die
 nicht weiterschwingt, wenn deine Tiefen schwingen.
 Doch alles, was uns anrührt, dich und mich,
 nimmt uns zusammen wie ein Bogenstrich,
 der aus zwei Saiten *eine* Stimme zieht.
 Auf welches Instrument sind wir gespannt?
 Und welcher Geiger hat uns in der Hand?
 O süßes Lied. (R. M. Rilke 1980, 238)¹²⁾

· 노새 · 노루 <푸란시스. 잠>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 듯이”-「별헤는 밤」에서.

12) R. M. Rilke, Werke Band I · 2, Gedicht-Zyklen, Insel Verlag, Ffm, 1980, p. 238. 그리고 이 시에 대한 영역본은 아래와 같다.

How shall I hold my soul so that it does not touch yours? How shall I lift it
 across you to other things?
 How gladly I would stow it away with some lost thing in the dark in a strange
 quiet place which does not vibrate when your depths vibrate! But everything that
 touches us, you and me, takes us together like one stroke of the bow which draws

당신의마음에는 닿지도 아니하게
어떻게 나는 나의 마음을 간직하고있어야 하리까.
어떻게 나는 그것을 높이어야 하리까 당신우으로
다른것에다가.
아아 나는 그것을 무엔가 어둠속에다가 잃어버릴
것만으로서
감추어 두고도싶다.
당신의깊은마음이 흔들리어도 흔들리질않을
아지도못할 어느중용한곳에다가.
그러나 당신과 내게 닿는 모든 것은
두줄우에서 한 흠뻑을 그어내는
바이올린의 시율이하는것처럼 우리를 하나로만들고
만다.
우리들은 어떠한樂器우에 놓이어있는것일까.
그리고 우리들은 어떠한 演奏者의 손속에 있는것일까.
오 아름다운노래. (『조광』 8 : 4)

그리고 이 시에 대한 현대판 번역본은 아래와 같다.

당신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의 영혼을 간직하오리까?
어이 그것을 넘어 다른 것으로 높일 수 있사오리까?
오! 그 캄캄한 암흑 속
그 어느 잃어버린 것의 옆
당신의 깊은 마음이 흔들려도 흔들려지지 않는
낮설고 고요한 그 곳에
나의 영혼을 간직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 연주자가 우리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당신과 나를 스쳐가는 온갖 것은
두 줄의 현에서 한 음을 엮어 내는

one voice out of two strings. On what instrument are we stretched? And what fiddler has us in his hands? O sweet melody!(*Song of Love, The Penguin Book of German Verse*, introduced and edited by Leonard Forster, Penguin Books, Harmondsworth, Middlesex, England, 1957, pp. 398-99).

바이올린의 활처럼 우리는 같이 사로잡는다.
어느 악기에 우리는 매어져 있는가?
오! 감미로운 노래여. (이후성 14)

당신의 영혼을 흔들지 않으려면
나의 영혼이 있어 무엇하랴.
어찌 당신을 지나 다른 것으로 오를 수 있을까.
아, 어둠 속에 잃어진 그 어느 것,
당신의 깊은 가슴이 흔들리면
더는 흔들리지 않을 어느 낯선 고요한 자리에
고이 간직하고 싶은 나의 영혼.
허나 당신과 나를 흔들어대는 것은 모조리
두 줄의 현에서 한 소리를 낳는
계급의 활같이 우리를 사로잡나니
우리를 이은 악기는 어느 것인가?
우리를 손에 든 연주자는 누구인가?
아, 사랑스러운 노래 (손재준 160)

이 시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랑을 주제로 하는 시로서 상대를 사랑하는 가늠 수 없는 마음을 두 사람이 하나되어 화음을 이루는 악기에 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시는 총 13행이나 윤태웅은 이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임의로 행구분을 하여 총 16행으로 번역하였으며 주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대번역본에서 이후성은 14행으로, 손재준은 13행으로, 영문번역본은 행구분 없이 산문체로 번역하고 있다.

윤태웅이 영역본을 참고로 했는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나,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윤태웅은 영문학 전공자이므로 독일문학에 대한 예비지식을 영문번역서를 통해 얻었을 수 있으며, 둘째, 당시 독일문학 번역에서 매우 적극적인 박용철도 영역본을 참고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영역본을 참고로 한 것은 일반적인 추세였기 때문이며, 셋째, 당시는 한글로 된 독일어사전이 없었던 시절이므로 독화사전(獨和辭典)과 독일사전(獨英辭典)에 의지해 가면서 번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장의 어미는 사랑하는 대상을 경외하는 의미에서 우리말의 어법에 따라

존칭어미 “~리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 시 번역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Seele”의 번역이다. 이 말은 본래 “Wesen”(존재의 핵심)(Heinz Messinger und der Langenscheidt-Redaktion 965)이고 영어로는 “soul”¹³⁾이다. 이것을 현대번역본에서는 “영혼”으로 윤택웅은 “마음”으로 각각 번역하였다. 이 시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윤택웅의 번역이 현대번역본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시의 “Geiger”는 바이얼린 연주자를 뜻하므로 텍스트 안에서도 바이얼린 연주자로 번역되어야 한다. 보편적으로 바이얼린은 사람의 슬픈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악기로 알려져 있으며 서양에서는 애수(哀愁)를 주제로 하는 작품 속에서 나타낼 때 바이얼린을 소재로 자주 쓴다. 베를렌느의 「가을의 노래」¹⁴⁾는 그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이 텍스트에서는 바이얼린 연주자로 해야 하며 단순히 연주자는 원문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 따라서 윤택웅이 연주자로만 번역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마지막 행의 “süsses”의 번역을 살펴보면, 영어로는 “sweet”(Heinz Messinger und der Langenscheidt-Redaktion 1039)이고 “달콤한, 감미로운, 매혹적인, 어여쁜”(한국독어독문학회 1030)으로서 윤택웅은 “아름다운”으로, 현대번역본에서는 각각 “감미로운, 사랑스러운”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보아 윤택웅의 번역은 오역이라 할 수는 없으나 역시 본뜻대로 “달콤한” 혹은 “감미로운”으로 번역했어야 한다고 본다.

4.1.2. 「엄숙한 시간」(“Ernste Stunde”)

Wer jetzt weint irgendwo in der Welt,
ohne Grund weint in der Welt,
weint über mich.

13) “The principle of thought and action in a person, regarded as an entity distinct from the body: a person’s spiritual as opp. to corporal nature,”(Lesley Brown(edt.). 1973. *The New Shorter Oxford*, vol. 2, Clarendon press, Oxford, p. 2954.

14) 참고로 이 시의 1연만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Les Sanglot longs/Des violons/De l’automne/Blessent mon coeur”(Oeuvre Complètes de Paul Verlaine, Texte définitif collectionné sur les Originaux et sur les premières éditions, Avertissement par Charles Maurice, Bd. 1, Paris, Messein 1930).

Wer jetzt lacht irgendwo in der Nacht,
ohne Grund lacht in der Nacht,
lacht mich aus.

Wer jetzt geht irgendwo in der Welt,
ohne Grund geht in der Welt,
geht zu mir.

Wer jetzt stirbt irgendwo in der Welt,
ohne Grund stirbt in der Welt:
sieht mich an. (R.M. Rilke 1980, 161-162)

지금 이 파우에 어데선가 울고있는
이유도없이 이 파우에서 울고있는사람은
나를 울고있는 것이다.

지금 깊은밤에 어데선가 웃고있는
이유도없이 깊은밤에 웃고있는사람은
나를 웃고있는것이다.

지금 이 파우를 어데선가 걷고있는
이유도없이 이 파우를 걷고있는 사람은
내게로 거러오는 것이다.

지금 이 파우에 어데선가 죽어가는
이유도없이 이 파우에서 죽어가는사람은
나를 보고있는 것이다. (『조광』8 : 4)

지금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은,
까닭도 없이 이 세상에서 울고 있는데,
나를 우는 것이다.

지금 이 밤 어느 곳에서 웃고 있는 그 사람은,



까닭도 없이 이 밤에 웃고 있는데,
나를 비웃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 어느 곳에서 거닐고 있는 그 사람은,
까닭도 없이 이 세상에서 거닐고 있는데,
나에게로 오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죽어 가고 있는 그 사람은,
까닭도 없이 이 세상에서 죽어 가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구기성 101)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울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우는 것이다.

지금 한밤중에 어디선가 웃고 있는 사람은,
한밤중에 까닭없이 웃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두고 웃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가고 있는 사람은,
까닭없이 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향해 오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까닭없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응시하고 있다. (김재혁 81)

지금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울고 있네.
하염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로 인해 눈물짓고 있네.



지금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웃고 있네.
밤에 마냥 웃고 있는 사람은
나를 비웃고 있네.

지금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걷고 있네.
세상에서 정처없이 걷고 있는 사람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네.

지금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네.
하염없이 죽어 가고 있는 사람은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네. (이후성 74)

이제 이 세상 어디에선가 우는,
까닭 없이 우는 그 사람은
나를 슬퍼 우는 사람.

이제 이 밤 어디에선가 웃는,
까닭 없이 웃는 그 사람은
나를 비웃는 사람.

이 세상 어디에선가 이제 걷고 있는,
까닭 없이 걷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찾아올 사람.

이제 이 세상 어디에서 죽어 가는,
까닭 없이 세상에서 죽어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응시하는 사람. (손재준 146)

이 작품은 비교적 번역하기 쉬운 시에 속하며 고독의 부정적 측면을 형상화한 작품으로서 릴케시를 논함에 있어서 항상 언급되는 “세계내면공간 (Weltinnenraum)”¹⁵⁾과 연결하여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는 시이다. “울고 있

는, 웃고 있는, 걷고 있는, 죽어 가는” 사람의 그 내면공간은 곧 나의 내면공간임을 나타냄으로써 인간의 실존을 노래하고자 한 것이 릴케의 의도가 아닌가 한다. 릴케가 생각하던 주요과제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과제(Aufgabe)라는 말을 썼듯이, 모든 현상간의 내적 관계를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차원 이상으로 가길 원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반복의 기법을 통하여 드러나 있으며 특히 “wer jetzt”는 각 연의 첫부분에서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인의 의도가 번역과정에서 정확히 드러나야만 한다. 윤택용의 번역본은 물론 다른 번역본들 모두 반복법은 정확히 지켜지고 있다.

원문 첫 행에서 대문자 “WIE”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를 강조한 원작가의 뜻을 살려 역시의 2, 3행 첫 구절에서 각각 “어떻게”를 사용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원시에서 쓰인 내어쓰기는 윤택용의 번역본에서 지켜지지 않았으며 다른 현대 번역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우리말에서 내어쓰기가 거의 보편화되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 있는 듯하다. 원시의 내용이 실존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이해가 어려울 뿐 표현형식은 비교적 단순하므로 번역과정에서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문대로 3행을 유지하고 있고 다만 부호는 원문의 것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원문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wer”를 살리기 위하여 각 행의 끝에서 “사람은”이 반복되고 있고 “울고 있는”, “웃고 있는”, “걷고 있는”, “죽어가는” 등 우리말의 리듬을 살리기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다.

4.1.3. 소녀의 노래 抄(Lieder der Mädchen)

Ihr Mädchen seid wie die Gärten
am Abend im April:
Frühling auf vielen Fährten,

15) 릴케의 세계내면공간은 경계없이 ‘내면(inner)’ 세계임과 동시에 ‘외부(outer)’ 세계도 포함하는 것이 특색이어서 ‘나(Ich)’와 ‘나 아닌 나(nicht Ich)’는 이른바 우주적 의식인 집합적 인식의 대양 안에서 용해된다(Roy Woods 30).

aber noch nirgends ein Ziel.

JETZT sind alle schon selber Frauen.
Haben Kinder und Träume verloren,
und Kinder geboren
und Kinder geboren,
und sie wissen : in diesen Toren
werden wir alle in Gram ergrauen.

Alles ihre hat Raum im Haus.
Nur das Avemarialäuten
hat ihren Herzen noch ein Bedeuten,
und dann kommen sie müd heraus.

Wenn die Wege zu wachsen beginnen,
kühl aus der blassen Campagna zieht's
ihres alten Lächelns entsinnen
sie sich wie eines alten Lieds. (R. M. Rilke 1975, 172-74)

너이들 少女들은 四月의저녁때의
꽃밭과도 같다.
봄은 길마다 널리어 있것만
꼭 어데 있는지는 알길이 없다.

지금은 모다들 벌서 남의안해들이다.
어린애기들이 달리고 꿈들을 잃었다.
어린애기를 낳았다.
어린애기를 낳았다.
그리고 알고들었다, 이 門中에서
모다들 서름으로 머리가 회고말 것을.

그들의 모든 것을 家庭속에 있다.
다만 아베 마리아의 種소리만이
아즉도 마음속에 어떠한 意味를 준다.
그래 疲勞우면서도 밖으로 나와본다.

길들이 작고 넓어지기만하고
쓸쓸한 꽃밭으로부터 바람만이 차게불어올때
잃어버린 少女적의 微笑가 생각한다.
어느 옛노래곡조나같이.....(『조광』 8 : 5)¹⁶⁾

너희들 소녀들은
사월 저녁의 정원
수많은 발자국을 그리며
아직은 이를 곳이 그 어딘지 모른다.

그들 모두 이미 여인이 되어.
어린 시절과 꿈을 잃어버린 채
아이를 낳고
또 낳았다.
그들은 그 문들 안쪽에서 모두가
원망 속에 백발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들의 모든 것은 집 안에 있어
기도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만이
그들 가슴에 아직 의미가 있을 뿐.
그들은 피곤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온다.

길들은 자라나기 시작하자
창백한 캄파니아 평원 멀리 침착하게 뻗어가고,
그들은 마치 옛날에 부르던 노래를 생각해내듯
그들의 옛날의 미소를 기억해낸다.(김재혁 216-218)

원시 1연 1행의 “Ihr Mädchen seid wie die Gärten”에서 쓰인 직유법에 맞추어 윤태웅은 “꽃밭과도 같다”로 번역하였고 현대번역본에서는 “~정원”,

16) 원문이 총 12연인데 논지의 집약을 위하여 1연부터 4연까지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즉 은유로 대체하였다. 직유로 혹은 은유로 번역하는 문제는 의미상 큰 차이는 없으며 다만 윤태웅이 직역한 것은 원문에 충실하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3행에서 윤태웅은 “봄은 길마다 널리어 있건만”으로, 현대번역본은 “수많은 발자국을 그리며 오는 봄”으로 각각 의역하였다.¹⁷⁾ 문맥으로 보면, 윤태웅의 번역이 우리말다운 번역인 것으로 평가된다.

2연은 전통적인 한국 여인들처럼 아이 출산으로 일생을 거의 다 바치는 여인들의 삶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원시의 1행 첫머리에 “JETZT”의 철자 모두를 대문자로 쓴 것은 여인들이 소녀시절과 현재의 처지가 이와 같이 달라진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릴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윤태웅은 이것을 “지금은”으로 문장의 첫머리에 번역해 놓고 있어 원문의 의미를 살렸다고 생각된다. 1행 끝에 “Frau”를 “남의 안해”로 번역한 것은 다음 행에 나오는 아이 출산과 관련지은 역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 틀린 번역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현대 번역본에서처럼 “여인”으로 번역하는 편이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행에서 “Haben Kinder und Träume verloren”을 “어린 애기들이 달리고 꿈들을 잃었다”고 번역한 것은 “어린 시절과 꿈을 잃은 채”라고 번역한 현대번역본보다 훨씬 더 시의 주제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결혼하여 어린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소녀시절의 꿈을 잃어버린 채, 한 가문(家門)에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늙어갈 것이라는 것이 바로 다음 행에서 이어지고 있고 어린아이를 계속해서 낳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법을 쓰고 있는 데서도 이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3행, 4행에서 “어린애기를 낳았다”를 반복해서 쓴 것은 여인들의 출산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인데, 김재혁의 “아이를 낳고/또 낳았다”로 한 번역이 의미의 전달이 잘 되면서 문체면에서 간결해 보인다.

3연에서는 2행의 “Avemarialäuten”의 “아베마리아 기도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¹⁸⁾라는 사전적 의미가 문맥상으로도 맞게 잘 번역되어 있다. 4행의 “und dann kommen sie müd heraus.”를 “그래 疲勞우면서도 밖으로 나와본다.”로 번역한 것은 “그들은 피곤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온다.”로 번역한 현대번역본

17) “Fährten”의 사전적 의미는 “발자국”(한국독어독문학회, 같은 사전, p. 647)임.

18) 한국독어독문학회, 같은 사전, p. 225.

만큼 분위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4연은 우선 1행의 “Wenn die Wege zu wachsen beginnen”을 “길들이 작고¹⁹⁾ 넓어지기만하고”로 번역하고 있는데, “길들은 자라나기 시작하자”로 번역한 현대번역본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 “kühl aus der blassen Campagna zieht’s”를 “쓸쓸한 꽃밭으로부터 바람만이 차게 불어올땐”이라고 번역한 것은 현대번역본에서 “창백한 캄파니아 평원 멀리 침착하게 뻗어가고” 보다 문맥에 적합한 번역이다. 윤태웅은 “zieht’s”²⁰⁾의 원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번역했기 때문이다.

5. 결론

본론의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윤태웅은 한국번역문학사상 1930년대 의욕적으로 독일시 번역에 전념한 박용철의 뒤를 이어 1940년대 번역문학 특히 릴케 시 번역의 꽃을 피운 착실한 번역가였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독일문학의 번역, 소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우리의 서정시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글로 된 독일어사전²¹⁾이 없이 독일어를 일본어로 풀어놓은 독화사전과 독일어를 영어로 풀어놓은 독일사전에 의지해가면서 정확한 우리말로 번역해야 했던 사정은 박용철과 비슷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1930년대 한국문단에 이미 박용철이 릴케의 서정시 이론을 소개한 뒤였기 때문에 그는 릴케 시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예비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셈이어서 번역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배경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윤태웅은 본래 영문학을 전공한 터여서 영역본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의 번역본을 원문과 비교해 보면, 시행의 순서를 원문과 맞추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고 적합한 표현을 찾아 원문에 충실하고자 하되 우리말다운 향취를 내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19) 문맥으로 보아 “작고”는 “자꾸”의 의미로 쓴 것으로 짐작된다.

20) “zieht’s”(zieht es)는 “there is a draught(draft)”(*Langescheidts Grosswörterbuch, Deutsch-English*, Langenscheidt, Berlin-Schönberg, 1982, p. 1224)이다.

21)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간된 독한사전은 『종로 독한 사전』(1949)이다.

을 알 수 있다. 현대번역본과 비교했을 때 문맥에 깊이 유의하면서 이를 능가할 만큼 탁월한 번역능력을 보인 부분도 더러 발견되는 한편, 직역에 몰두한 나머지 문체면에서 미숙한 면을 보인 면도 있었다. 당대의 수준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결과를 내놓은 번역가로서의 그의 업적은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번역업적은 앞으로 더욱 더 확대시켜 세밀하게 조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그러한 과제가 단계적으로 수행될 때 한국번역문학사상 1930년대를 이은 1940년대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철. 1975.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 김재현. 1995. 『번역의 원리와 실제』. 한신문화사.
- 김주연. 1981. 『릴케』. 문학과 지성사.
- 릴케, R. M. 구기성 역. 1995. 『릴케 시선』. 을유라이브러리 32, 을유문화사.
- 릴케, R. M. 김재혁 역. 2000. 『형상시집』. 책세상.
- 릴케, R. M. 손재준 역. 1988. 『사랑이 있는 풍경』. 정음사.
- 릴케, R. M. 송영택 역. 1983. 『릴케시선』. 삼중당문고.
- 박찬기. 1980. 『독일문학사』. 일지사.
- 시문학사. 1940. 『박용철전집』2. 동광당서점.
- 안정효. 1996. 『번역의 테크닉』. 현암사.
- 이충섭. 1992. 「한국의 카프카 수용 1955-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충섭. 이후성 역. 1989. 『장미와 사랑』. 응성출판.
- 전광진. 1981.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연구』. 삼영사.
- 『조광』 8. 1942. 4. 1 및 5.1
- Barnwell, K. 1980.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Translation*. Horsleys Green, England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Bollnow, O. F. 1956. *Rilke, W.* Kohlhammer Verlag, Stuttgart.

- David, D. 1997. "The translating of poetry", *The Poet in the Imaginary Museum*. Persea Books, New York.
- Forster, L. 1978. *The Penguin book of German Verse*. Penguin Books Ltd., New York.
- Güttinger F. 1963. *Zielsprache: Theorie und Technik des Übersetzens*. Manese, Zürich.
- House, J. A. 1977. *Model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Gunter Narr, Tübingen.
- Koller, W. 1979.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Quelle & Meyer, Heidelberg.
- Koppen, E. 1981.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Vergleichende Literaturwissenschaft, Akademische Verlagsgesellschaft Athenaum,, Wiesbaden.
- Krzesowski. 1979. *Contrastive Generative Grammar*. Tübingen.
- Messinger, H. und Der Langenscheidt-Redaktion. 1982. *Langenscheidts Grosswörterbuch*. Deutsch-English, Langenscheidt, Berlin-Schönberg.
- Newmark, P. 1982. *Approaches to Translation*. Pergamon Press, Oxford.
- Nida, E.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involved in Bible Translation. Leiden.
- Reiss, K. 1971.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Übersetzungskritik, Kategorien und Kriterien für eine Sachgerechte Beurteilung von Übersetzungen*. München.
- Rilke, R. M. 1939. *Duino Elegies*. Commentary by J. B. Leishman and Stephan Spender, New York.
- Rilke, R. M. 1980. *Werke Band I · 1*. Gedicht-zyklen, Insel Verlag, Ffm.
- Smith, P. 1967 "Element of Rilke's creativity", *Oxford German Studies*. 2.
- Woods, Roy. 1996. *Rilke Through a Glass Darkley Poetry of R. M. Rilke and its English Translation. A Critical Comparison*. Wissenschaftlicher Verlag, Trier.

[Abstract]

An Examination of Yoon Tae Woong's Translation of Rilke's Poem

Kim, Hyo Joo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Following Park Young Chul who dedicated to the translation of German poems, Yoon Tae Woong was an excellent translator of the 1940's. Yoon's efforts encouraged the introduction and translation of German literature into Korean, and thus enriched Korean poetry.

Yoon's translations must have gone through the same treatment as Park's in that he had to rely on German-Japanese and German-English dictionaries since German-Korean dictionaries were yet not published. However, he had advantages over Park because he could work on the basis of Park's contributions introducing Rilke's theories of lyric poems.

Since Yoon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the possibility that he referred to English editions is high, although to date there exists no substantial proof. His detailed efforts to keep the original intact and to translate as faithfully as possible are to be seen throughout his translations. Some of them not only satisfy modern standards but also exceed contemporary versions of translation.

His achievements as translator deserve fair and proper evaluation and need to be studied more deeply. Only after that, the history of Korean literary translation in the 1940's can be truly understood.

▶Key Words: transfer, the closest natural equivalent, the pragmatic aspect of meaning, culture,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al critics.

김효중 (Kim, Hyo Joong)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비교문학(국문학) 및 번역학

연락처: 집 053-981-7095, 학교 053-850-3121

휴대폰 011-9382-7095

e-mail: hjkim4@cu.ac.kr 혹은 glarakim70@hanmail.net

논문투고일: 2005년 4월 20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2005년 6월 10일

K C I